영화인 위한 AI 세미나 '화제'

영화 제작 접목 AI 기술 현재 · 미래 현직 영화인들과 조망

영화인을 위한 AI 세미나, AI+Movie 포스터

최근 영화인을 위한 AI 세미나 'AI+Movie'가 개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현직 영화인들이 모여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영화사 (주)에이아이시네마(대표 장동찬)가 주최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아이시네마는 지난 11일부터 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감독, 프로듀서, 투자사 관계자 등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영화인을 위한 AI 세미나, AI+Movie'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이를 영화 제작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주제로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현직 영화인들과 함께 조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영화 프로듀서는 "영화로 개발하던 프로젝트를 AI 시리즈물로 제작해 보려 혼자 학습해 가며 이런저런 시도를 하던 중 세미나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됐다"며 "제작자는 물론 감독과 영상 비주얼 작업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이라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960년대 배경의 시대물을 준비하고 있는 한 영화감독은 "개념조차 모호했던 AI 기술과 영화의 만남이란 테마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AI 기술은 향후 영화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 및 주최한 에이아이시네마 장동찬 대표는 "올해 상반기 미국의 오픈AI사가 생성형 AI 프로그램 SORA(소라)를 선보여 전 세계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 유사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수백여 개가 쏟아져 나오며 영화와 드라마 업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영화계 일선의 창작자들과 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생성형AI 기술의 개념과 실제 영화 제작에 적용되는 방식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청년예술인 단체 '화(和)' 공연

청년예술인 단체인 '화(和)'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세병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춤과 음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진도북춤으로 시작되며, 변화무쌍한 바다를 달래고자 하는 진도 지역의 기교적인 춤사위와 북소리가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가야금과 장구 장단에 맞춘 부채산조 등 전통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전주의 이야기를 담은 '몽금척'이다. 피날레를 장식할 '몽금척'은 이성계가 꿈속에서 산신령으로부터 금척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예지몽을 퍼포먼스로 재현해 장엄하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비밀의 화원', '인연'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이 첼리스트와 한국 무용수의 협연으로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故 후광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탄신 100주년 기념 어록 서예전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8~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김대중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어록 서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재단, 한국서예협회 전북지부와 공동 주관으로 '故 후광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서예를 사랑했던 김대중대통령의 친필 유묵 30점과, 대통령의 말씀을 담은 창작 서예 작품 56점을 선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유묵은 이번 전시를 위해 김대중 재단이 개인 소장가들로부터 수집한 유묵들이며, 전북도민들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들이다.

18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대중 100주년 기념사업회 문희상 위원장, 故김홍일 의원의 배우자 윤혜라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서예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서예 진흥과 대중화를 위해 서예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전북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들과 출향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무인양품 '제100회 연결되는 시장' 참가 지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전북 관광굿즈 공모전' 선정 기업 대상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안중현)는 무인양품 20주년 기념행사인 '제100회 연결되는 시장'에 '2024 전북 관광굿즈 공모전'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의 연결 기회를 제공,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9~20일 이틀 동안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 100회 차를 맞아 참여 지자체를 추가 모집했다. 참여하는 9개 지자체와 111개 업체는 부스에서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한다.

공모전에 선정된 기업 5개 사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3곳 그리고 재단 사업에서 우수 역량을 보여준 기업 4개 사 등 총 12개 기관·기업이 참가해 전북자치도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전북 관광굿즈 공모전' 선정기업으로는 △그래버(책갈피), △그린웍스(피규어 키링 시리즈), △로컬웍스(반다나 시리즈), △무아디자인(키캡 시리즈), △향유(담배꽁초파우치 시리즈) 등 총 5곳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으로는 △전주문화재단(도서 및 굿즈), △익산문화관광재단(굿즈), △순창발효관광재단(굿즈) 등이 있다.

이 외도 재단 사업에서 우수 역량을 보여준 기업으로 △초이리 브루어리(전통주), △성수주조장(막걸리), △위시아트랩(도자기류), △익산여행자쉼센터(굿즈)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중현 센터장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무인양품과 함께 도내 관광 분야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홍보 및 공동 상품 개발 등 전북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환경보건 인식 개선 위한 영화상영회 ·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와 전북대박물관(관장 엄혁용)이 지난 16일 첫 협력사업으로 제1회 환경보건 영화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보건 관련 영화를 함께 관람한 뒤 전문가와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산업화 된 농업이 토양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인 재생 농업을 제시하고 있는 'Kiss the Ground'라는 영화가 상영됐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함태진 기상·기후 칼럼니스트, 박진영(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서현(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해 시민들과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 박서현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생명을 부양하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중의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 상감청자,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 참가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의 상감청자가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에서 열리는 2024년 징더전국제도자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비색청자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가 주최하고 국제도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도예 행사로서 세계도자기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열리며 세계 120개국 도자기관련 기관 및 개인요장들이 참여하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무형문화재 사기장 청자재현작품과 부안관요 상감청자 상품 그리고 부안청자박물관 뮤지엄샵에 입점한 도예작가들의 100여점의 다양한 청자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고려시대 상감청자 재현작품이 전시되어 과거 한국으로 건너간 중국 청자가 어떻게 상감청자로 변모하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고려시대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을 알리면서 중국에서 전해진 청자를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상감청자로 발전시킨 부안의 청자를 세계시장에 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박람회를 통해 중국과의 도자교류 및 판로개척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